

조경조형물에 대한 궁금사항 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 그라시움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관심과 긍지를 가져주시는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말로만을 통해 판단하여 오해가 생긴 것 같아 디자인과 함께 설명을 드리오니 문화적 갈등의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고덕 그라시움의 조경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수많은 항목들을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현장방문과 설계회의도 수없이 반복하면서 비용이 덜 들면서도 관리가 수월하고 철학과 역사, 전통적 문화가 스며있는 수준 높은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러기 위해 아파트조경 사상 최초로 세계 4대 대표정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로 타 단지와의 조경 수준 비교를 차단하고 차별화하려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시공사는 가급적이면 시공이 편하고 이미 결정된 공사비가 덜 드는 쪽으로 설계방향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조합의 입장은 셈법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정원에서 핵심인 캐스케이드를 설계에서 삭제하자, 또 한국정원에서도 이상한 논리의 민원을 들어 조형물들을 삭제하자는 것 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동서양을 조화롭게 하고자 한 모든 구상이 전체적으로 헝클어지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도 공사야 되겠지만 허접한 조경이 될 것이고 후회되는 일이 될 것이며 마치 '양꼬 없는 찐빵'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시공사 선정지침서에 게재된 아이디어였으며 세계 4대 정원을 들어 분양광고한 분양 당시의 홍보는 거짓이 됩니다. 단지 내 조경설계를 구청이 간섭할 사항도 아니지만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면 맥 빠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이 사유지에 강제로 텃밭 만들게 한 것은 아는 둥 마는 둥하면서 차별화를 위해 작품화 된 전통

문화의 조형물을 하지 말자고 한다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정히 설치하지 말자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절감비용은 시공사가 그냥 남겨가더라도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제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의 구상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종교와 문화적 혼돈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정원에 한국적 소재와 정서를 배척한다면 이미 한국 정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한국정원을 꾸립니까? 그냥 잔디나 소나무 등을 심어두면 됩니까? 이에 서면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략 설명 드리오니 잘 보시고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찬반 갈등이 있으므로 원안을 변경하는 최종 결정을 하려면 차기 총회 때 조경조형물 설계부분만 독립안건으로 상정하여 찬반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합의 생각은 더 좋은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구하려 하는 것이지 이것이 최상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고집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징 조형물



■ 열두띠 음양각판화 대한 설명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두띠는 무슨 동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구본을 중심으로 분수를 설치하고 그 둘레에 12개의 석조물(소형 석조벤치 선단)에 대략 A4사이즈 내외 크기의 판화처럼 음각과 양각으로 새겨지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민간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우리 전통문화와 작품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은 고덕 그라시움에 사는 모든 사람, 즉 집단의 상징을 누구나 띠를 가지고 12띠를 떠올렸고 각자의 띠에 대한 상빙을 희화화하여 표현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 문무석에 대한 안배의미

궁전의 문무인석을 모방하여 문인석과 무인석 1쌍을 안배하는 것은 12 띠를 갖고 고덕 그라시움에 사는 모든 분들이 문무를 겸비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현인이 되라는 기원이 들어 있습니다. 추후 입주책자에 또 밝혀두겠습니다만(만일 제작하게 된다면) ---

문인석 FRONT



무인석 FRONT



문인석(주경)



무인석(야경)

■ 장승과 솟대

장승과 솟대는 너무나 오랜 역사와 세월을 가진 문화입니다. 장승은 예로부터 마을의 초입에서 평화를 지켜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솟대는 과거급제를 떠난 집안 남자의 간절한 소식을 기다리는 뜻으로 세워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문화행사에서 다시 대두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그것을 신앙으로 믿는 이가 있는지요? 이것은 이미 하나의 문화입니다. 모태신앙 천주교신자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초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즉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라는 말에 주안을 두었던 것입니다.



■ 시비 시조비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제의 거리 이른바 프로모네이드 217번지에서 212번지를 통하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거리를 조성하고자 구상한 것입니다.

선발 대상은 (사)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서 강동문인협회 회원, (사)한국 통일문인협회 회원, (사)한국시조협회 증견회원 15명과 역사와 사랑이 실린 화답시조가 2편을 엄선하였다. 일방적인 채택은 저작권시비가 있다하여 기부서약서를 최종 내는 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장의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제목의 시는 우리 단지 재건축사에 얽힌 그동안의 애환과 입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준공 기념사와 같은 글로서 단순한 개인 시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 4대 소문주

조각품을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사방신을 느껴 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순한 전통문화의 작품 그것도 엄청나게 상징화된 작품일 뿐입니다.

동문 : 청룡의 한 갈기를 상징하여 작품화하였음

서문 : 백호의 한 털을 상징하여 작품화하였음

북문 : 현무의 한 갈기를 상징하여 작품화하였음

이상에서 무엇을 애니미즘 신앙으로 느껴지나요?

남문은 없으므로 남측보행로 출입구 측면 공지에 주작의 조각상을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전통적 철학이나 문화를 인용했지만 여기에서 무슨 특정적인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FRONT



LEFT

